

## 마음열기

아래 내용은 인터넷에 올린 어떤 사람의 고민과 그 고민에 대한 누군가의 답변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 고민

제가 심정적으로 믿음은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실이라면 내 모든 삶을 바칠 수도 있지만 진실이 아니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싶습니다.(지금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상한 기도를 드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저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귀머거리, 봉사, 병어리가 되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실이라면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신다면 다리 하나, 팔 하나, 눈 하나를 떼어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한 나머지 이렇게 제 몸 하나를 망가뜨려도 좋으니 믿음을 달라고 하였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사람인가요? 제가?

### 답변


믿음이 있다면 없는 눈도 다시 생길 것이며, 또한 믿음이 있다면 소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볼 것입니다 온갖 장애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도 은사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은사는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십시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아실 겁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조르십시오.

지금님의 눈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들은 허상입니다. 바로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실상입니다.님이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하며님이 연단을 통하여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정금같이 나오시며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며,하나님의 뜻을 알

고 속히 깨달으시므로 이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금식 기도를 추천합니다)

 위의 글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은 어떠합니까? 위에 올라온 답변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의 글들을 읽고 당신이 느낀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나눔

1. 아래 질문들에 대해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믿음과 무모함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 당신이 생각하는 큰 믿음은 어떤 것인지, 내가 '더 큰 믿음'을 요구하게 되는 순간은 어떤 상황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믿음의 크고 작음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누가복음 17:1-6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2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3 너희는 조심하여라. 만약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4 만일 네 형제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그 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5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6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네 말에 순종할 것이다.”

#### **히브리서 11:35-40**

35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36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37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찢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족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38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39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0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5-6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어떤 것이니까?(5절)**

 **더 큰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6절)**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 히브리서 11:35-40은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나요? (35-38절)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39절)

📖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할 때는 어떤 순간 일까요?

📖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경험이 있나요?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기를 원하나요? 당신의 이런 생각에 히브리서 본문은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적용과 결단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믿음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더 큰 것, 더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언젠가부터 믿음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근사한 마법의 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상황이 내 예상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이 상황은 이러이러하게 진행해야 해'라고 이미 나만의 기대와 예측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게 됩니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지 믿음의 크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믿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 던지신 그렇게 우리에게 구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어려움이고 때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히 11장에 나오는 약속된 것조차 받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승리가 아니더라도, 고난이더라도, 힘들더라도, 종교적 체험이나 개인적 행복, 내 뜻, 나의 원함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기대와 계획인가요?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가 아닌, 내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된 적은 없나요?

어려움, 손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삶으로 보여줄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